"尹파면" 촉구 거리로 나선 광주 정치인들, '사망·병원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거리에 나선 광주지역 정치인들이 사망하거나 건강 악화로 잇따라 쓰러지고 있다.

18일 광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13분께 북구 운암동 사거리에서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60대 당원 신모씨가 쓰러져 숨졌다.

신씨는 이날 '윤석열 파면' 1인 시위를 하던 중 쓰러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지난 11일부터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8일째 철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의원과 구의원 등 지방의원도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잇따라 쓰러지고 있다.

김나윤 광주시의원과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이 지난 15일부터 연이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황예원 북구의원도 이날 건강 악화로 실신해 병원에 실려갔다.

명진 광주시의원, 정달성 북구의원, 오영순 남구의원, 문선화 동구의원, 윤영일·강한솔 광산구의원, 임성화 서구의원 등 7명도 건강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주위에서 단식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앞에서 8일째 단식농성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고혈압과 혈당 등 건강이 악화돼 이날 쓰러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졌다.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 동지의 비보까지 접했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며 "더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헌재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한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18일 오전 눈보라를 맞으며 5·18민주광장 앞에서 8일째 철야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제공

60대 민주당 당원 1인 시위 중 쓰러져 사망
철야 단식 농성 중 국회의원·지방의원 실신

철야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 지방의원 7명은 이날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뒤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날 광주 집회에는 이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단식농성 중인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동료 의원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고 응원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병원에 다녀 온 후 파면 선고 대열에 다시 합류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18일 오전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목포방면 한 터널 인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차량 수십여대가 잇따라 부딪쳐 소방 당국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보성소방 제공

보성 고속도로서 눈길 관광버스 등 다중 추돌

전남 보성 남해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관광버스 등 차량 수십대가 부딪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께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목포방면 한 터널 인근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달리던 관광버스가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뒤따르며 감속하던 승용차와 화물차량이 서로 부딪쳤다.

이후 차량들이 잇따라 뒤엉키면서 차량 40여대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운전자·동승자 2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일대 도로를 전면 통제한 뒤 벌교IC 방면으로 차량 우회를 안내하고 있다.

경찰은 눈길에 관광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주제2순환도로 노조 31일 총파업 예고… 인건비 등 쟁점

노조 "인건비 투명 집행 안돼… 직원 복리후생비 동결"
사측 "지노위 확인 받았다… 임금인상율 5년 간 33.8%"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광주제2순환도로에서 노사간 임금 협상을 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인건비 집행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 사측은 노동당국으로부터도 확인을 받은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18일 광주 제2순환도로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31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총파업에는 제2순환도로노조 소속 70명이 잠정 참여한다. 제2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연대 광주순환도로 노조(27명)도 오는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행동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제2순환도로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의 도급 용역사 맥서브를 향해 지난 2018년부터 동결된 복리후생비 인상과 올해년도 기본급 1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는 인건비를 집행한 뒤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용역에 나서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모두 동결했다"며 "사측과 도급용역을 맺으며 운영 전권을 줘버린 광주순환도로투자㈜도 원청으로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율이 타 민자도로 사업소 대비 높고 인건비 집행 내역도 투명하다고 맞섰다.

사측은 "제2순환도로 근무자의 최근 5년 임금인상율은 현재까지 33.8%로 타 민자도로 사업소 대비 월등하게 높다"며 "또한 2023년 합의서에는 2024년 임금협상은 발주처와 계약한 인건비 내에서 합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서는 전체 인건비 집행내역을 공개해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받았다"며 "개인별 임금의 집행현황 공개, 개인별 직책별 차등 인상과 이에 대한 인사권 요구 등 무리한 요구로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전민규 기자

1억 수표 발행→부도→30년 해외도피… 60대에 실형 구형

1억원 상당 수표를 발행·지급한 뒤 부도를 내고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60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402호 법정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2월부터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 상당의 은행 당좌계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 등지에 지급 제시하고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척으로부터 사업체를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에 처하자 이른바 '공수표'만 남긴 채 중국으로 달아나 30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다.

해외 도피 생활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됐고 A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귀국한 뒤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장기간 해외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생활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업의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비채권자 일부와는 이미 변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 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염치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채권자와의 피해 변제·합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24일 오전에 열린다.

/이승원 기자

광주 3월 눈, 평균 10년 1.3일·5년 0.6일… '중순 폭설' 이례

광주에서 3월에 눈이 내린 날은 얼마나 될까.

18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광주에서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3월 눈이 관측된 해는 총 7년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연속 3월에 눈이 내렸고 지난해에도 눈이 관측됐다.

30년 동안 평균 3월 눈 일수는 2.4일로 최근 10년으로 좁히면 1.3일이다. 최근 5년으로는 0.6일로 해가 갈수록 3월 눈이 내리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 이날처럼 3월 중순 눈이 온 날은 더 드문 일이다. 3월15일 이후 눈이 내린 날은 2018년(3월20·21일, 4월7일)과 2019년(3월15일) 뿐이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3월 중순 내린 눈은 2018년(3월21일) 하루를 제외하고 소낙눈이나 진눈깨비였다. 올해 같이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은 이례적이다. 광주에서 관측 이래 3월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렸던 날은 2001년(3월8일) 8.8㎝였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북극쪽에서 찬 공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눈이 많이 내리게 됐다"며 "저기압 통과하고 나면 내일부터 점차 기온 올라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